

새 책

깊고 느리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진

▶아직 멀었다는 말(권여선 지음)=전작으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던 작가가 4년 만에 내놓는 여섯번째 소설집이다.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모르는 영역'을 포함해 8편의 작품을 함께 엮었다. 익숙한 것의 이질감에서 벗어나 모르는 곳으로 한발 다가선 시도가 일한다. 스물 한 살의 스포츠용품 판매원인 '소희'부터 레즈비언 할머니인 '데린'과 '디엔'까지, 익숙한 것을 금지하며 다양한 인물을 향해 뻗어나간다. 문학동네, 1만3500원.



임종진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에게 옳은 사진 결과보다는 찍는 과정 중요

초상권이라는 말이 흔해진 건 그리 오래지 않다.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하는 일에 대개 무심했다. 온힘이 빠지도록 물질을 마치고 나온 검은 고무옷 입은 제주 해녀들에게 망설임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던 시절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사진지유자'라고 규정하는 임종진씨는 그같은 초상권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인간의 존엄을 묻는 사진을 고민한다.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위한다는 사진들이 사실은 그들의 힘겨운 생애만 집적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다. 나와 '그들'을 '우리'의 범주 안에 넣고 싶었고 현상보다는 사람을 우선해 보고 싶었다. 나의 사진이 내가 아닌 '그에게 옳은' 사진이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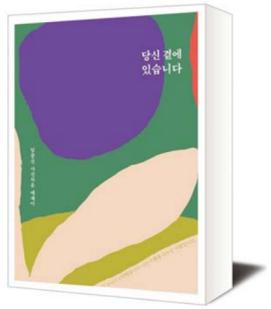
북한과 이라크 현장을 취재하던

사진기자였던 그가 어느 날 신문사를 그만두고 가장 가난한 나라인 캄보디아로 떠났던 이유다. 그는 그곳 국제구조기공에서 일하며 무료 사진관을 열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아픈 사람들의 곁에서 '사진 치유'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글을 쓰고 사진을 담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는 그같은 여정을 풀어낸 '사진 치유 에세이'다. 긴 시간 해매며 찾아낸, 하고 싶은 사진의 방향성을 독자들에게 나누고 있다.

그에게 사진은 결과가 아니라 '찍는 과정'이다.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 찍는다. 가난한 이들의 빈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웃는 귀한 존재임을 사진으로 말하려 한다. 장애 인에게서 장애만 바라보는 것 역시 차별의식을 확산시킨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사진을 찍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도 그는 아쉬울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



진은 '나'라는 존재와 대상으로서 '너(또는 사물)'라는 존재가 서로 마주함으로써 이미지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는 결정적 장면을 포착하는 맛보다는 같은 시공간에서 천천히 유영하듯 머물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즐겁다는 걸 알게 됐다.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 향했던 낯선 나라는 그를 오히려 셔터를 누를 일이 줄어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그는 오늘도 천천히 깊고 느리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진을 꿈꾼다. 소동, 1만6500원.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저자와 함께 20년 만에 시집 강순 시인 "설레는 생의 마법 미지의 문장에"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을 묶은 제주 출신 강순 시인.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용기를 내 다시 시인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가 첫 시집을 내놓은 해는 2000년이다. '이십 대에는 각 시봉어가 산다'로 당시 그를 향한 시평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언어에서 언어를 받아 내는 뛰어난 산과적 상상력과 존재의 소멸 위협을 무릅쓰고 언어와의 합일을 시도하는 대담함, 그리고 언어와 존재의 경계선을 따라 춤을 추듯 걷고 있는 그 화려함". 언어를 다루는 시인에 대한 지극한 상찬이었지만 그 뒤로 그의 창작집을 만나기 어려웠다.

그 긴 시간을 두고 시인은 '절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느 날 원고 마감에 쫓겨 발표와 숙성을 거치지 않은 날것들을 발표하고 있더라"며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아 1~2년 간의 휴지기를 가져볼 마음으로 시작한 휴식이 생각보다 오래 갔다"고 했다. 3년 전부터 문예지에 작

첫 시집 상찬 뒤 오랜 침묵 '마녀 일기' 연작 등 담겨 고통 너머 환상 통한 견딜

20년 만에 출간된 '즐거운 오렌지가 되는 법'이다.

시집엔 슬픔과 풍문으로 대별되는 생의 통점이 흩어져 있다. '슬픔은/ 당신 등을 평생 파먹는 곤충' ('어쩌면 나비')이라고 했다. '아픈 데는 없고?'라고 묻는 이에게 '늘 그렇지 뭐' ('박쥐의 계절')라는 답이 돌아온다. '나'에게 기억은 달콤하지 않다. '귓속에서 짐승소리가 났다'는 '귀를 씻었다'의 한 구절은 '서랍에서 빛바랜 낡은 두 귀를 꺼내' 천천히 씻어내서야 비로소 '내'가 되는 안전한 순간으로 바뀐다.

'마녀 일기' 연작엔 '나'라는 여자가 겪어온 고통 너머 환상을 통한 견딜이 읽힌다. '덜컹이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간 '눈사람'엔 통증으로 온몸이 부스러졌던 어느 아이의 초상이 그려진다. 울음을 버리고, 풍문을 버리고 돌아온 뒤 애써 웃으며 '언니, 이제 나는 웅감해졌어요'라는 아이. 그래서 '나'는 '안녕'이 불편하다. 안녕하고 싶지만 안녕하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간 번다한 일상을 사느라 다시 시인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현실에 남모름 눈물을 쏟아냈다는 그는 이제 시라는 마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낯설고 설레는 생의 마법을 미지의 문장에 실은 채 말이다. 파란, 1만원.

진선회기자 sunny@ihalla.com

묻고 또 물었던 나날들에 그는 비출 불빛

나희덕 산문집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펼쳐든다. 5세기에 살았던 한 사제의 고민은 21세기를 건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는 그의 말 앞에 시인은 새삼 자신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헤아려봤다.

2012년 산문집 '저 불빛들을 기억해'를 냈던 나희덕 시인이 지난 혼란과 고통 속에 던졌던 수많은 질문을 담은 글을 더해 개정판을 묶었다. 묻고 또 묻는 것만이 그나마 사랑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시인은 누추한 삶의 기록들을 되살리며 우리가 잃어버린 불빛을 기억하려 한다.

산문집의 구성은 칸딘스키의 '점·선·면'에서 따왔다. 점이 하나의 작은 세계이자 존재의 내밀한 모습이라면, 선은 개체와 또 다

른 개체의 만남을 뜻한다. 여러 형태의 선들이 만나 완성되는 면은 사회 또는 공동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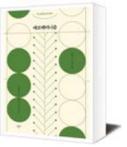
그래서 '점'에는 시인이 걸어온 나날들이 담겼다. '선'에는 시인이 작·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을 통해 삶의 온기를 확인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자리하고 있다. '면'에는 기후위기, 죽음, 질병과 통증, 먹거리, 현대문명의 한계 등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에 산재한 과제들을 짚었다.

'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슬픔의 이유를 알 권리의 한 대목이다. "4월의 달력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 개나 뚫려 있다. 4월 3일과 4월 16일. 고통의 블랙홀과 같은 이 두 개의 숫자 앞에서 우리는 해마다 어떤 집단적 통증



이 되살아나는 걸 느낀다." 개정판에 새로이 실린 글 중 하나로 시인은 마음껏 슬퍼하고 분노할 권리를 말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해군과 해경은 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배후에는 대체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이 오랜 슬픔의 향연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마음의술, 1만3800원. 진선회기자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이기봉 지음)=우리나라 고지도 속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인 저자는 고지도를 포함한 우산도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산도가 왜 독도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독도인 우산도의 위치, 크기 정보가 확보되고 그 지식이 전파되는 과정까지 살폈다. 소수출판사, 1만9000원.



▶움베르토 에코의 지구를 위한 세 가지 이야기(움베르토 에코 글·에우제니오 카르미 그림)=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호학자이자 철학자, 소설가 등으로 활동했던 움베르토 에코의 세 편의 동화를 엮었다. 그가 어린이를 위해 쓴 이야기는 어떻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서로 같고 다름의 차이가 무엇인지처럼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꿈터, 1만2000원.



▶난 그냥 나야(김규정 지음)=초승달이 손톱 모양을 한 것은 동그란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고, 작은 그릇은 언젠가 큰 그릇이 돼야 할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는 무엇이 꼭 되기 위한 내가 아닌, 그냥 내 자신의 지금을 얘기한다. 어른들의 잔소리를 향해 귀엽게 항변하는 아이 목소리가 온전한 '나'를 사랑하라고 속삭인다. 바람의아이들, 1만3000원.



▶몽땅 잡아도 돼?(알렉스 그리피스 글·그림)=주인공 조지는 밤낮으로 곤충 채집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어느날 마주한 들뜬 전과 다르게 조용하기만 하다. 나무도 축 쳐졌고, 온종일 뛰어다니며 잡았던 곤충도 한 마리 없다. 조지의 깨달음으로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린 생태계가 다시 균형을 찾는 이야기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한다. 푸른숲주니어, 1만2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세상의 모든 돌 이야기

STONE

현무암

수입대리석·화강석 판매 및 수입대행

대리석

라임스톤

트라버틴

화강석

샌드스톤

중국석

오닉스

미블인은 30년동안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대리석 광산들과 직거래 하며 자체 광산을 개발, 수입, 가공, 판매하는 수입석 전문 회사입니다.

마블인

하치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2
공 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52

T. 064)713-6866 / 010-3873-7650
E-mail : marble2017@naver.com / www.marblein.co.kr